

## 4/19(화) 에스라 묵상 17

### 에스라 9:7-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파괴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심각한 죄악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그 죄의 원인을 조상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도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는 마치 원죄에 있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결코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롬 3:10-11,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에 에스라는 자신들이 포로된 자들 중에서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8-9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벌하시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은혜를 입게 된 것도 그들이 포로지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세우고 수리하게 하는 열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친 영혼과 시험에 들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소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포로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귀환이 되고 또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 성전 재건의 숙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범한 죄는 10절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1-2절과 오늘 본문 11-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과의 통혼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심각한 것은 솔로몬의 똑같은 죄로 인해 결국 부강했던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죄에 대한 댓가로

그들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도 선언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리가 다른 신을 두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방 족속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한 세대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에스라도 그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13절상,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15절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판 밖에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지금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노력도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에스라 자신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동족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죄에 빠져 있거나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정후란시스(중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